



장애자 올림픽 이렇게 도와야 한다

조 일 목

인간가족의 최대의 축제 -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류 대화합의 햇불을 온 누리에 밝히고 88년 10월 2일 막을 내리면 곧이어서 10월 15일에는 사랑과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극복의 올림픽인 제8회 서울장애자 올림픽이 축복 속에 다시 힘찬 광파례를 울리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상자의 재활수단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장애자 스포츠는 구트만 박사에 의해 영국 런던 교외의 스토크 맨드빌 병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며 1960년 로마대회를 시발점으로 7회 대회를 거치면서 인간의 의지와 용기의 한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결전장으로 세계 모든 장애자들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복지의 잔치가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동안 열리는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에는 세계 60여개국으로부터 4천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여 17개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장애자가 곳곳에서 걸어야 하는 불편과 불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자올림픽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인력·시설·장비는 물론 이려니와 대회를 성공적으로 끌어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가 처음 선포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복지사회를 국정지표로 하여 장애자 복지시설, 스포츠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복지대책 기금 설치, 장애인등록제 실시, 장애자 의료보호 확대 등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인 개선에 팔목할 만한 관심과 지원책이 속속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가지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자들을 도우려 해도 돕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거나 단순한 동정의 표시가 이들을 돕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자에 대한 우리의 눈길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에게 동정이나 연민의 눈빛을 나타내서는 안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눔이요, 동등한 참여의 기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의식 속에서 장애자들이 소외되고 그 부모와 가족들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장애자가 있다는 것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장애가 유전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장애자는 대부분이 약물의 오·남용을 비롯, 각종 재해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금년 10월 15일 잠실 주경기장에서는 다채로운 공연행사와 더불어 장애인올림픽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화려한 개회식이 펼쳐집니다. 이 축제에는 국내의 수 많은 장애자들이 초대될 것이며, 세계 곳곳으로부터 수천명의 인간 승리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대회의 이념인 도전과 극복, 평화와 우정, 참여와 평등을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할 일은 이들이 보다 자유롭고 더 큰 즐거움을 갖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들을 어떻게 맞아 들일 것인가 마음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장애인올림픽 후원회가 조직되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으며, 또한 대회참가국과 국내 단체와의 자매결연운동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국민의 사랑과 봉사의 마음이 합쳐질 때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참뜻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불편 없는 시설·장비들, 장애자를 대하는 따뜻한 눈길과 손길,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기에 찬 행동,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오는 10월에는 인간 존중의 기본정신으로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우정어린 대회, 검소한 대회, 특성있는 대회가 “복지한국의 얼”을 빛낼 것입니다.

〈필자=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